

구한말 마더 '로제타' 연극으로 만나다

ACC 국제 공동 창작 연극
미국 '리빙 시어터' 참여
차별에 맞선 사랑 이야기
13~14일 문화전당 극장2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연습실에서 열린 연극 '로제타' 연습 장면 공개에서 배우들이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도에 빈민과 병자, 고아,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헌신해 성녀로 추앙 받는 마더 테레사가 있다면 조선엔 마더 로제타가 존재했다.

구한말,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해 시대의 차별과 선입견에 맞서 싸우며 근대 여성 교육과 의료 봉사에 생애를 바친 로제타 셔우드 홀(Rosetta Sherwood Hall, 1865~1951)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연극으로 환생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연극 '로제타'를 오는 13 오후 7시30분, 14일 오후 3시 ACC 극장2에서 공연한다.

"2022 ACC 국제공동 창·제작 공연사업"의 하나로 선보이는 이번 시범공연엔 로버트 드니로, 알 파치노 등이 거처며 20세기 연극

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미국 실험연극의 전설 '리빙 시어터(The Living Theater)'를 비롯해 연극 '나는 광주에 없었다' 등으로 광주와도 인연이 깊은 '극공작소 마방진'과 '엘로람'이 공동제작자로 참여했다.

대한제국 시절 활동했던 서양 여성이자 의사인 로제타 셔우드 홀이란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공연은 우리 시대에도 해소되지 않

은 장애, 여성, 서양 대 아시아문화 등 '다름'에 대한 편견과 그 변화를 위한 노력의 메시지를 전한다.

공연은 실제 일기장을 바탕으로 로제타의 '순간들'을 담아냈다. 장애에 관한 인식과 싸움, 여성과 사회, 일제 강점기 정치·종교의 문제를 로제타의 시점, 로제타 안의 다른 자아의 시점, 그리고 제3자의 시점으로 풀어낸

다. 이를 위해 리빙 시어터의 토마스 워커를 비롯한 3명의 배우와 한국 극단 마방진 배우 등 총 8명이 로제타 역을 연기한다. 당시 분위기를 재현하기 위해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진행된다.

로제타는 차별대우를 감내하며 살아왔던 조선 여성에게 근대 의료와 교육의 여명을 열어 준 인물이다. 최초의 여성병원을 설립하고 결핵 치료를 위한 크리스마스실을 도입했다.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특수교사 오봉래와 한국 최초의 여성 양의사 에스테르 박을 지원하고 한글점자를 개발했으며 그 공적으로 국민훈장모란장을 받았다. 타계한 이후엔 국극 미국이 아닌 한국 땅에 묻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강현 전당장은 "세계 연극사에 큰 족적을 남긴 미국의 리빙 시어터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단체 중 하나인 마방진의 협력이 기대된다"면서 "서울에서도 볼 수 없는 작품인 만큼 전국의 연극 팬들의 많은 관심과 관람을 바란다"고 말했다.

관람연령은 만 13세(중학생) 이상이다. 입장료는 전석 무료로 ACC 홈페이지(www.acc.go.kr)에서 예약할 수 있다.

/최진화 기자

전남관광 디카시 '웃음꽃 전담'



나주호

조의연

시나브로 모여든 실 가닥 같은 물줄기들이
웅덩이에 모여들어
골골이 얽힌 저마다의 깊은 한을 풀어놓고
출렁출렁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먼 산봉우리들이 듣고 고개를 끄덕인다



호남대 공자아카데미 중국 고전무용 강좌 /호남대 제공

중국 고전무용 무료 강좌 내달 22일까지 총 8주간 호남대 공자아카데미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가 공자아카데미 1층 다목적홀에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 고전무용 무료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강좌는 중국 무용의 소개와 소품들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원어인 강사의 지도 아래 직접 다양한 중국 고전무용 동작을 배우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수강생들은 "무료 강좌이지만 수업 내용이 알차고 다른 곳에서는 배울 수 없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중국 고전무용 무료 강좌는 오는 2월 22일까지 총 8주간 진행되며 남녀노소 모두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공자아카데미(062-383-8867)로 문의하면 된다.

/황애란 기자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년...기념공연 즐긴다

6월부터 '라흐마니노프' 시리즈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연주회

임윤찬, '피아노 협주곡 3번'

5월 뉴욕서 사흘간 선보여

러시아 후기 낭만주의 음악의 거장인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1873~1943)의 탄생 150주년을 맞아 그의 음악과 생애를 기리는 무대가 올해 국내에서 풍성하게 마련된다.

라흐마니노프는 생전에 190cm의 장신과 긴 손가락에서 뽑아져 나오는 기교와 힘으로 생전에 피아니스트로 이름을 날렸고, 풍부한 색채와 서정성이 넘치는 피아노 명곡들을 다수 남겼다.

눈에 띄는 공연은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테마 연주회인 '리추얼 라흐마니노프' 시리즈다.

부천필은 교향곡과 피아노 협주곡 1~3번을 주축으로 라흐마니노프의 작품 세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곡들을 6월부터 12월까지 네 차례의 연주회를 통해 선사한다.

부천필은 6월 23일 부천아트센터의 개관 기념 연주회인 '리추얼 라흐마니노프 I'에서 피아니스트 김혜진의 협연으로 피아노협주곡 제1번과 교향곡 제1번을 들려준다. 이어 7월 7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는 피아니스트 아비람 라이헤르트의 협연으로 피아노협주곡 제2번과 교향곡 2번을 선사한다.

9월 22일 부천아트센터에서 열리는 공연은 '리추얼 라흐마니노프' 시리즈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다. 부천필은 피아니스트 김도현의 협연으로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제3번과 교향곡 제3번을 들려줄 예정이다. 마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1921년 촬영)/위키미디어

금호아트홀연세는 3월 23일 피아니스트 김홍기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전주곡(프렐류드) 전곡 연주 무대를 마련했다.

피아니스트 박재홍도 5월 11일과 12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서울시향과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을 협연한다.

KBS교향악단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도 라흐마니노프를 준비 중이다.

지난 무대인 12월 7일 예술의전당에서는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를 비롯해 피아니스트 임효선 협연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교향적 무곡'을 차례로 선보인다.

올해 통영국제음악제 무대에도 라흐마니노프가 주요 레퍼토리로 등장한다.

국내 공연은 아니지만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뉴욕 공연에도 이목이 쏠린다. 임윤찬은 오는 5월 10~12일 사흘간 뉴욕 데이비드 게펜 홀에서 제임스 개피건이 지휘하는 뉴욕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3번을 들려줄 예정이다.

올해 임윤찬과 김도현 등이 연주할 예정인 이 곡은 '악마의 협주곡' 또는 '피아니스트의 무덤'이라 불릴 만큼 극한의 고난도 테크닉을 요구하는 작품이다. 임윤찬이 지난해 미국 반 클라이번 국제피아노콩쿠르 결선에서 이 곡을 신들린 듯한 연주로 선보여 세계적인 화제가 된 바 있다.

/연합뉴스

문장건설
http://moonjang.kr

세상을 높이는 기업

MUN JANG

2023년 문장건설의 새로운 비전과 도전을 위해 준비 중인 오통2지구 초고층 주거복합(1,246세대) 건설사업은 매머드급 상업시설을 포함한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지금까지 회사가 쌓아온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노하우"와 시공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남양신도시 최고(最)의 랜드마크 작품으로 선보이겠습니다!

남양신도시 오통2지구 프로젝트 | 초고층 주거복합 5개블록 1,246세대 외
주거복합 10BL | 주거복합 11BL | 주거복합 12BL | 주거복합 13BL | 주거복합 14BL

사업영역

- 건축** 사람과 공감을 잇는 기술력
- 토목** 도로 철도 항만 부지 조성
- 주택** 자연과 사람이 하나되는 집
- 조경&전기** 문화 공간 교육 시설 에너지 저장 및 공급, 친환경 발전소